



미 증시, FOMC 의사록 결과 반영하며 약세

미국 증시 리뷰

3 일(수)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 12 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 위축, 10 년물 국채금리 재상승 등에 하락 마감 (다우 -0.76%, S&P500 -0.8%, 나스닥 -1.18%)

12 월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2024 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데 동의. 그러나 경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인하 전환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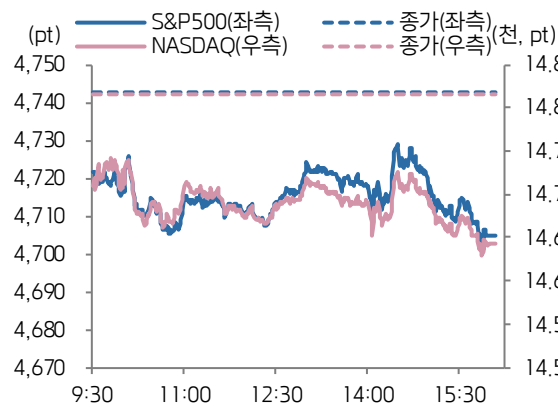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며 추가 금리 인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옵션이라고 강조. 또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경제 전반의 성과에 대한 확신에 따라 "금리 변화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경기 연착륙의 위험요인으로 경제성장이 역전되는 것, 지정학적 사건이나 작년 3 월의 은행 충격 같은 예상치 못한 혼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인 2%를 넘는 경우, 혹은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높게 유지되는 경우 4 가지를 언급.

12 월 ISM 제조업 PMI 은 47.4(예상 47.1, 전월 46.7)로 전월대비 개선되었으나 위축국면 지속. 고용 지수 45.8 에서 48.1 로 상승, 가격 지수 전월 49.9에서 45.2로 하락. 신규 수주지수는 48.3에서 47.1, 생산지수는 48.5에서 50.3로 상승.

11 월 JOLTs 구인건수는 879 만건(예상 885 만건, 전월 885 만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하회, 11 월 이후 하락세 지속되며 노동시장 위축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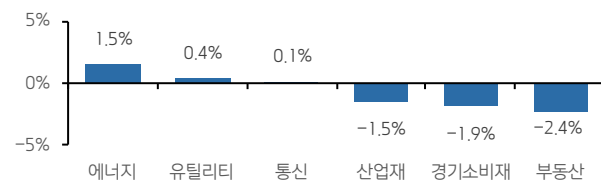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1.5%), 유틸리티(+0.4%), 통신(+0.1%) 강세. 부동산(-2.4%), 경기소비재(-1.9%), 산업재(-1.5%) 약세. 아마존(-0.97%), 메타(-0.53%), 테슬라(-4.01%) 등 기술주 약세. 애플(-0.75%)은 전일 투자 의견 하향 이후 이틀 연속 하락. 국채금리 4%대 도달에 금리에 민감한 인페이즈 에너지(-6.87%), 솔라엣지(-5.76%) 등 태양광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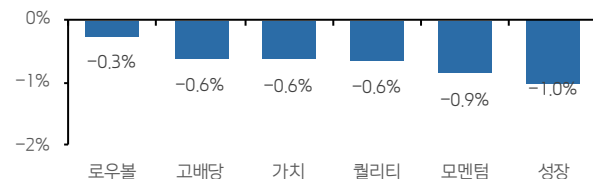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7.31	-2.34%	USD/KRW	1,305.01	+0.34%
코스피 200	351.20	-2.59%	달러 지수	102.46	+0.25%
코스닥	871.57	-0.84%	EUR/USD	1.09	-0.04%
코스닥 150	1,383.73	-1.72%	USD/CNH	7.17	+0.02%
S&P500	4,704.81	-0.8%	USD/JPY	143.24	-0.03%
NASDAQ	14,592.21	-1.18%	채권시장		
다우	37,430.19	-0.76%	국고채 3년	3.275	+3bp
VIX	14.04	+6.36%	국고채 10년	3.335	+3bp
러셀 2000	1,959.20	-2.66%	미국 국채 2년	4.331	+1bp
필라. 반도체	3,941.21	-2.03%	미국 국채 10년	3.916	-1.3bp
다우 운송	15,504.56	-1.71%	미국 국채 30년	4.073	+0.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48.13	-1.43%	WTI	72.7	+3.3%
MSCI 전세계 지수	721.57	-0.76%	브렌트유	78.43	+3.35%
MSCI DM 지수	3,145.42	-0.75%	금	2042.8	-1.48%
MSCI EM 지수	1,016.38	-0.81%	은	23.16	-3.32%
MSCI 한국 ETF	63.35	-2.15%	구리	386.15	-0.4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1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7.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x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정책 전환 시점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테슬라, 엔비디아 등 전기차, 반도체주 부진이 국내 관련주들의 수급 이탈 유발 가능성 3. 장중 미 10 년물 국채 금리 움직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10 년물 금리가 장중 4.0%대를 터치하는 등 3.8%대를 기점으로 반등하면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진 배경은 연준의 정책 전환을 둘러싼 논란 확대에서 기인했음. 그 가운데, 전일 공개된 12 월 FOMC 의사록도 전반적인 톤은 지난 11 월 의사록이나 12 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의 발언에 비해 다소 매파적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금번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정책금리가 고점 혹은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하면서 긴축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으나, 금리 인하로의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 또 인플레이션 등 경제 데이터가 기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시에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놓는 등 모든 정책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 후행적으로 단행할 것임을 시사.

이 같은 의사록 공개 이후 Fed Watch 상 3 월 금리인하 확률이 70%초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6 회 금리인하가 컨센서스로 형성됐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음. 이는 11 월 JOLTs 상 구인건수 부진(879만건, 컨센 882 만건) vs 12 월 ISM 제조업 지수 개선(47.4, 컨센 47.1) vs 12 월 ISM 가격지수 급락(45.2, 컨센 49.5) 등 고용, 제조업, 물가 관련 지표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으로 하여금 큰 폭의 컨센서스 변화를 유보하게 만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국제 유가가 리비아, 홍해 사태로 인해 가격이 수시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나, 상기 지표들보다 내일 발표되는 12 월 고용, 다음주 목요일 발표된 12 월 CPI 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추가 전망에 반영할 필요. 이를 감안 시 다음 주까지는 시장 참여자들간에도 눈치보기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 금리, 달러 등 주요 자산가격들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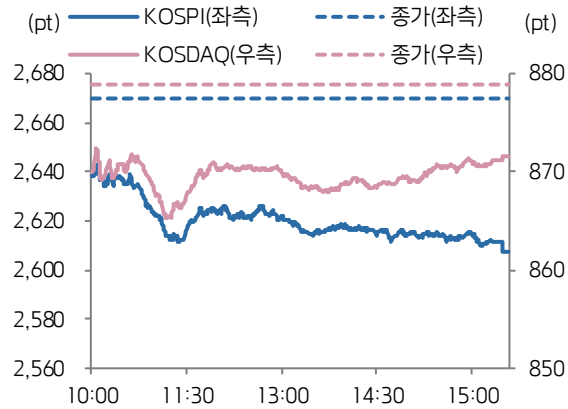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10 년물 금리 급반등, 달러 강세 등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 속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주력 업종들이 기관 중심의 매도 물량으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급락 마감(코스피 -2.3%, 코스닥 -0.8%).

금일에도 전일 코스피 2%대 급락이 과도했다는 인식은 상존 하겠지만,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인해 중립 이하의 증시 환경이 조성될 전망. 최근 미국 업종과 국내 업종간의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업종 측면에서는 테슬라(-4.0%), 엔비디아(-1.2%) 등 미국 성장주 약세로 인해 국내 성장주들도 투자심리가 악화될 전망.

최근처럼 금리 변동성 확대,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등 매크로 불안이 다시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이익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 금번 4 분기 실적시즌부터 올해 1 분기 실적시즌까지는 '24 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 및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대안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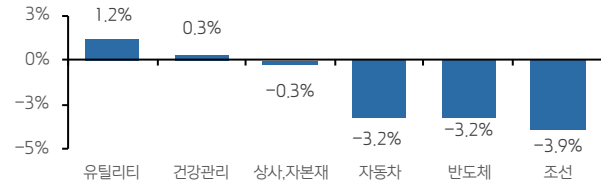
전일 대부분 주가 급락세를 연출했지만, 이익조정비율 관점에서 최근 한달 동안 긍정적인 이익 전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IT 중소형주 등 IT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은 추가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동시에 월 중 변동성 장세가 수시로 출현할 수 있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버스 베팅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베타 또한 낮은 내수주들도 일부 편입해서 월말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헤지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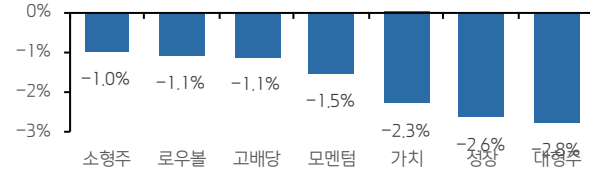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